인문논총 제45집
2001년 8월 pp. 67~118

#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 반(反)스페인주의, Shakespeare, 그리고 Calderón[1)]

이 종 숙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서 언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글은 16, 17세기 영국의 연극에 대한 두 가지 '정설'에 대한 반응이다. 그 하나는 계몽주의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17세기의 영국과 스페인에서 비슷한 경향의 연극이 발흥했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17세기의 영국 연극은 당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의 산물로서, 당대 역사를 절대 왕정의 궁정 정치 세력과 신흥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반대 세력간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설이다.[2)]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을 영국뿐 아니라 유럽이라는 커다

---

1) 이 연구는 1997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학제간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임.

2) 계몽주의 시대의 '정설'은 Shakespeare 연극의 "원시성"이 스페인 "황금시대"의 연극, 특히 Calderón과 Lope de Vega의 연극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스페인 연극과 Shakespeare 사이의 관계를 "영향" 관계로 정의한 Voltaire에 의해 대변된다. 우리 시대의 '정설'은 맑스주의를 비롯한 여러 갈래의 역사주의적 논의의 산물이다. 예컨대 Perry Anderson이 엮어 내는 유럽의 대서사(grand narrative)—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이와 국민 국가 형성의 대서사—에 의지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르네상스 연극을 비교 분석하는 Walter Cohen, *Drama of a Nation: Public Theatre in Renaiss England and Spain* (Ithaca, NY: Cornell UP, 1987)이나, 절대 왕정과 신흥 자본주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을 영국사의 절대적 동기로 규정하는 Jonathan Dollimo

란 지도(전자가 유럽의 문화 양식적 '지도'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유럽의 정치, 경제적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속에 그려 넣으려 시도하는 이들 '정설'은 둘 다, 흥미롭게도, 당대 유럽의 '지도'를 재편성한 사건인 종교 개혁을 누락하거나 간과 혹은 축소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은 사실 16, 17세기에 영국과 스페인에서 발달한 연극의 전유럽적 위치를 결정한 요소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을 당대 유럽의 지도 속에 그려 넣으려 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는 종교 개혁이라는 대사건이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적어도 200년 동안을 영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 반천주교주의(Anticatholicism), 반스페인주의(Anti-Hispanism)라는 집단 정서다.

Shakespeare, Calderón, Lope de Vega가 모두 고전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희극과 비극을 한데 섞어 역사극을 만들어 냈다면, 이들의 유사성은 (Voltaire가 지적하는 대로) 이들 문학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단계에 있었거나, 그 원시성을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으로부터(Shakespeare가 스페인 황금시대의 작가들로부터) 배워 왔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은 역사극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이 두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의 문학사적, 문화사적 의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유사성의 원인은 오히려 영국과 스페인이 공동으로 체험했던 현실, 즉, 이들 나라가 이 기간 동안

---

*Radical Tragedy: Religion, Ideology and Power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 Contemporaries*, 2nd ed. (New York: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9)를 보라들의 논의를 따른다면 영국은 당대 유럽의 위기를 가장 첨예하게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을 사로잡고 변화시켰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문제들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나라, 문자 그대로 섬나라가 되고 만다. 예컨대 신세계의 발견과 경영이라는 당대 최대의 사건은 탈/식민주의 담론 연구라는 특정 공간으로 추방당하고, 당대 유럽의 모든 면모를 지배한 지배 동기였던 종교의 문제는 이상주의적, 본질주의적 휴머니즘과(이들의 해석을 따르면, 천주교를 끝내 버리지 않고 몰래 믿은 당대 영국 작가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전복적, 진보적, 회의적, 과학적, 경험주의'의 갈등로 추상, 번역, 왜곡되어 형해만 남아 있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마치 당대 유럽과 영국의 역사가 절대 왕정, 국민 국가 형성, 국가주의의 발생, 자본주의의 발흥 등 몇 마디 안 되는 판에 박힌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1585-1604) 종교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3] 요컨대 영국의 종교 개혁과 함께 시작된 이 두 국가 사이의 적대 관계가 이들로 하여금 당대의 역사적 진행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역사극을 만들어 내게 했다면, 그들이 만들어 낸 역사극은 또한 문학을 통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에 가담하는 국가적 문화 제도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16, 17세기 영국의 역사극은 당대 유럽의 "위기"(종교적 변혁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위기")에 대해 스페인의 역사극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Calderón은 Shakespeare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소재를 빌어 오지만, Shakespeare의 개신교적 해석과는 달리 전형적인 천주교적 해석을 제공한다. Lope의 극작품들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전통과 스페인의 숙명적 세계 지배라는 신화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반면, Shakespeare를 비롯한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은 그 신화에 대한 영국적 거부 반응을 강하게 표출한다. 스페인 연극이 스페인의 유럽 제패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영국 쪽은 스페인 중심의 유럽 질서에 대한 전복적 상상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서로 적대적인 이 두 나라의 작가들은 같은 시대적 문제에 반응하되 서로 적대적인 대답을 마련했으며, 그 대답을 통해 충돌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형식적 유사성이 사실은 이들 국가의 충돌 과정에서 생산되어 그 충돌을 증거한다면, 그리고 그 충돌의 연유가 종교적 갈등에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연극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정설, 혹은 우리 시대가 이들 연극

---

3) John Clyde Loftis 같은 학자들은 이 유사성이 영국과 스페인의 상호 교류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중세 연극의 민중적 전통과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고전적 경향이 결합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화 양식적 설명만으로는 유사성의 의의를 제대로 짚어 낼 수 없다. 그 설명은 직접적 영향 관계나 문화 양식의 전승 또는 결합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들 연극을 생산케 한 역사적 토양, 즉 이 두 국가의 역사적 관계와 당대 유럽이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혁명적인 변화들, 특히 종교 혁명, 신세계 발견, 국가주의의 발흥과 같은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Loftis의 책 *Renaissance Drama in England and Spain: Tropical Allusio History Play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85) 참조.

에서 확인한 맑스주의적 공식, 즉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는 절대주의와 신흥 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종교야말로 국가주의를 뜻하는 단어라는 Sir Lewis Namier의 말을 새삼 음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4] 사실 16, 17세기 영국의 연극이 누렸던 대중적 인기는 이 매체가 Henry 8세의 종교 개혁 이후 거의 모든 영국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던 걱정, 즉 종교와 국가라는 문제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을 현상 중의 하나다. Luther의 종교 혁명 이후 유럽인들에게 종교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천주 교회와 개신 교회 중 어느 쪽이 진정한 교회인가의 문제는 자신의 사후 영혼의 행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국가로 남게 된 영국의 경우 종교의 문제는 개인적 영혼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며, 당대 영국인들에게 개인적 영혼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불가분으로 얽힌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스페인과 같은 천주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들이 진정한 종교요 유일한 영혼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개신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다. 요컨대, 당대 영국에서는 종교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으며, 정치뿐 아니라 연극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문화, 언술 행위를 지배한 관심사였다. 실로 당대 연극은 종교가 곧 국가임을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제도로서 발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16,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연극은 한 마디로 종교 개혁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적대적 관계의 시발점인 영국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Calderón의 *La cisma de Inglaterra*와 Shakespeare의 *Henry*

---

4) 최근에 그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 Debora Shuger의 말대로, 종교야말로 "th master-code of pre-capitalist society"며, "the cultural matrix for exploratio every topic"이라고 할 수 있다(Shuger, *Habits of Thought in the English Renai Religion, Politics, and the Dominant Culture* [Berkeley: U of California P, 5-6, 9).

에 이르는 스페인과 영국의 문학적 충돌, 문학을 통한 충돌, 혹은 문학을 통해 표현된 문화적 충돌을 상세하게 추적해 볼 생각이다. 이 글의 초점은 그래서 스페인보다는 영국에 맞춰져 있고 영국 작품들의 연대를 기본적으로 따를 것이다.

## 2. 종교 개혁과 역사 다시 쓰기 :
### Bale과 반스페인주의의 시작

16, 17세기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은 Henry 8세가 Anne Boleyn과 결혼하기 위해 스페인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Charles 5세의 이모 Catherine과의 이혼을 결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은 그게 사랑 때문이었건, 후사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건, 아니면 Henry 자신이 내세운 것처럼 형수와 결혼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건 간에, Henry 개인이나 Tudor 왕가라는 당초의 맥락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Henry의 이혼 결심은 교황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왕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1534년의 선언(the Act of Supremacy)으로 이어져서, 영국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의 관계를 협조에서 충돌로 바꿔 놓은 사건이었으며, 영국의 국민 국가 형성의 시작을 기록하고, 영국에 근대를 불러들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5]

Henry의 국왕 지상권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 영국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세계 제국의 이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Henry는 그런 주장을 통해 교황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종교 혁명에 이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

5) *Docu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ed. Gerald Bray (Cambridge: James Cla Co., Ltd., 1994), pp. 113-15.

셈이었다. Henry의 이혼은 자신의 의도나 희망과는 별 상관 없이 영국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불러들인 것이다. 따라서 Henry의 종교 개혁은 한편으로는 교황제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성화하는 이중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이중의 작업은 칼과 창이 아니라 펜과 혀를 사용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선전전의 우선적 목표는 영국의 대중에게 종교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즉 교황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대중화하여 그것을 새로운 정설로 굳히는 작업이었다. 당대에 발달한 인쇄술과 교회의 강단을 통한 이 대규모 대중 조작 사업의 제 1단계는 교황과 교황 제도에 대한 적개심 불러일으키기였다. Thomas Cromwell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선전 사업은 교황제적 입장에서 해석되고 기록된 이제까지의 영국 교회의 역사를 '거꾸로' 써서 교황제의 몰락과 종교 개혁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하여 이들이 차용한 이념적 필터는 계시록 해석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에 의하면, 계시록은 인류의 역사를 선과 악의 지속적 싸움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 싸움이 신의 개입으로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 날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문서였다. 영국 개신교의 이론가들은 이 계시록이 표현하는 말세론에 역사 의식을 결합하고, 신의 역사의 연대표가 영국 역사의 연대표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그들이 특히 의지한 계시록 해석법은 중세의 이단들이 사용한 해석법이었다. 중세의 성서 주해자들은 요한 계시록에서 영원한 파멸의 이미지로 사용된 바빌론(Babylon)과, 요한 1서 2:18과 요한 2서 1:7에만 언급된 적그리스(Antichrist)에 관심을 집중하고, 적그리스도가 말세를 알리는 징조로서 악세력의 화신이라고 해석하였다. 중세의 이단자들은 이 해석을 차용하여 교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이들 이단은 용이 지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인 예수 탄생으로부터 교황 Sylvester 2세에 이르는 천년을 제외하면(요한계시록 20:1-3), 인류의 역사란 선과 악의 대결의 역사였고, 특히 교황제로

표되는 적그리스도의 화신들이 소수의 참된 신도들을 박해하는 역사였지만, 이것은 예수 재림과 새로운 예루살렘(Jerusalem)의 도래와 함께 끝날 것이며, 그 날이 오면 초기 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풀이하는 전1통은 또한 중세 독일의 *The Play of Antichrist*(1160년경), Chester Cycle 기적극(miracle play), Langland의 *Piers Plowman* 등 14세기 유럽의 대중 문학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교황제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박해당하는 자신들을 참된 교회라 내세우는 전략은 Luther를 비롯한 대륙의 종교 개혁파들도 사용한 것이었다.

영국의 개혁파들은 중세의 이단자들이나 대륙의 종교 개혁파들의 적그리스도 해석을 차용함으로써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편, 정통 기독교 전통을 재해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도덕적, 이념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세의 천주 교회와 그것을 계승한 당대의 로마 천주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고, 자신들은 단순히 그들만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그 근원인 사탄과 대결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 천주교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요 바빌론 창녀의 애새끼들이며, 자신들은 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saint)라고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 영국 개혁파들이 자신들의 개혁 투쟁이야말로 로마 교회라는 '미신'을 발본색원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복음을 심는 일로서 우주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 것은 따라서 당연한 일이었다.[6]

이 우주적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Henry 시대 최고의 종교 개혁 이론가였던 John Bale은 영국의 교회와 사회사의 중요 사건들에서 계시록적 의미를 찾아 내는 작업을 통해 계시록적 역사관을 영국 종교 개혁기의 이념적 필터

6) 적그리스도 논의는 1536년에 시작된 Thomas Cranmer의 반교황 선전전에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Christopher Hill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논의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Throughout the period 1530-1640, then, except for a challenge in few years, the identification of Pope and Antichrist won very general supp Church of England" (*Antichrist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Oxford: Oxf 1971], p. 40).

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Henry 말기에 Cromwell의 몰락과 그에 이은 Henry의 반동적 탄압을 피해 대륙으로 피신한 Bale은 그곳에서 *The image of bothe churches*(1541-47)를 썼다.[7] 이 책에서 Bale은 예수의 탄생에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교회사를 계시록의 7개의 봉인으로 상징되는 7단계의 역사 진행으로 풀이했다. Bale은 이 책자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바빌론이 멸망하고 용이 다시 천년 동안 묶이게 될 제 7봉인 개봉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 주는 가장 확실한 전조는 자신과 같은 진정한 신도들이 박해당하고 유배당하는 당대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통하여 Bale은 인류 역사의 흐름, 특히 기독 교회의 역사를 관류하며 서로 대립해 온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고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로 규정하는 한편, 개혁 교회를 참 교회라 선언할 뿐 아니라 교황의 필연적 멸망과 개혁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한 것이다. 이 주장이 겨냥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은 개혁 교회에 전통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참 교회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존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Bale은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는 따라서 전통적 권위를 결핍한 개혁 교회에 인류 역사 전체라는 전통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었고, 이제까지의 교회 역사를 '거꾸로' 쓸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만들 수 있었다. Bale의 '거꾸로' 쓴 역사를 통해 로마 교회의 역사는 신이 선택한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박해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되고, 박해당하는 개혁 교회는 참 교회의 유구한 역사에 편입되어 순식간에 로마 교회만큼이나 유구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 교회 역사를 개혁 교회가 송두리째 전유한 것이다.

영국 교회를 로마 천주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Bale은 기독교의 영국 전래에 대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냈다. 속설과는 달리 예수의 복음은 아리마대의 요셉(Joseph of Arimathea)와 사도 빌립보(Philip)의 들이 영국에 맨 처음 전파했고, Lucius 왕이 영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다

---

7) 원래 제목은 *The image of bothe churches after the moste wonderfull and he Revelacion of Sainct John the Evangelist*로, R. Iugge에 의해 London에서 출판되었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Saxon족 침략자들에 의해 탄압을 당하였고, Augustin 이후에는 로마 교황의 앞잡이들에 의해 노략질을 당했으며, Norman족 침입 후에는 수사와 예수회 수사들의 행패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영국의 왕들은 그들의 압제에 저항하고 그들의 부패와 싸웠으며, Wyclif, Gower, Chaucer, Tyndale, Frith, Bilney 등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출현하여 진정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교회사에 대한 체계화된 해석을 펴내기 전에 Bale은 이미 '거꾸로' 바라본 역사를 연극의 형태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도 *Image*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원래 Carmel회 수사였던 Bale은 William Tyndale의 영향을 받아 1530년대 중반에 개신교로 개종하고 Thomas Cromwell의 후원 아래 몇 편의 희곡을 썼다. 교황이 영국 왕에게 가한 변절, 배반의 사례를 골라 뽑아 도덕극(morality play)으로 만든 이 작품들은 영국 최초의 역사극들이다. 이 중 *King Johan*은 Tyndale이 1528년에 쓴 *Obedience of a Christen Man*에 나오는 John 왕에 대한 언급을 1538년 극화한 것으로 Thomas Cranmer의 저택에서 초연되었는데, Richard Morinson의 개혁을 선전하는 새로운 종류의 놀이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8] 왜 Bale이 John 왕의 사례를 선택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Obedience*에서 Tyndale은 이미 John의 이야기를 교황제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John 왕의 사례야말로 교황에 대한 충성심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근본적으로 상치됨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지적한다: "Did not the legate of Rome assoyle all the lordes of the realme of their due obedience which they oughte to the kyng by the ordinance of God?" (fol. 157r-v). 교황의 도배는 영국이 몽땅 망할지라도 자기네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반란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

8) Tyndale의 텍스트로는 *The Obedience of a Christen man and how Christē rulers o to governe . . .* 이라는 제목으로 Antwerp에서 출판된 초판본을 사용하였고, Bal 작품의 현대 판본으로는 Barry B. Adams, ed., *John Bale's* King Johan (San Mari The Huntington Library, 1969)을 사용하였다.

아니라, 교황파 역사가들은 역사조차도 교황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왜곡했는데, John 왕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가 나빴던 것은 모두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Tyndale의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서 개혁파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거니와 Bale이 앞으로 취할 방향을 제시해 준 셈이다.

과연 Bale은 *King Johan*에서 "국가"라는 키워드로 교황제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낸다. Bale은 극의 중심을 Innocent 3세가 John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tephen Langton을 대주교로 임명한 사건에 모으고, 교황이 왕권을 짓밟은 이 사건의 의의를 신학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일체감과 정치적인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John과 Innocent 3세의 대결이 Henry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한 선구적 예로서 제시되고 John은 영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로 봉해지는 것이다. 사실 John과 교황의 투쟁은 이 작품이 초연된 1538년 당시 Henry 8세가 처한 입장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사화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Henry를 파문하는 교황령이 내려지고 Henry와 교황의 갈등은 영국 전체의 문제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King Johan*은 도덕극(morality play)의 양식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덕극과는 달리 인간 영혼의 구원과 같은 문제를 다루거나 기독교적인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세 도덕극의 대표작인 *Everyman*의 보편적이고, 비역사적이며, 기독교적인 세계와 비교할 때 *King Johan*이 보여 주는 세계는 특정적이며, 역사적이고, 세속적이며 정치적이다. 이 도덕극에서는 알레고리로 등장한 인물들이 끝까지 알레고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적이고 특정적인 정치적 인물로 변한다. 알레고리의 보편적 세계가 Bale에 의해 재해석되고 다시 씌어져서 문자 그대로 역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Sedition은 극 한가운데서 어느새 Stephen Langton으로 변하고, Private Wealth는 Cardinal Pandulphus로, Usurped Power는 교황 Innocent 3세로 바뀐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인물은 현재에 대해 말해 주는 역사적 알레고리임이 드러난다. England는 1538년 당대의 영국과 다르지 않음이 드러나고, 교황에게 패배하고 끝내는 수사에 의해 독살당하는 John의 순교자적 모습은 Henry 8세를 나타내는 Imperyall Majesty의 득

의 만만하고 위엄에 가득 찬 목소리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중세의 허구적 알레고리처럼 보이던 것이 역사적 사실임이 밝혀지고, 중세의 역사가 가지는 당대적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이 도덕극의 당대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은 더 할 나위 없이 명백해진다. Bale은 John의 예를 교과서로 삼아 Henry 8세에게 교황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치는 한편 Henry 8세가 주도한 종교 개혁이 영국의 국가적 복지를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선전하는 것이다.[9]

영국 역사에 대한 이런 해석은 영국 종교 개혁기의 또 다른 중요한 테마를 탄생시키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영국 역사를 박해받고 학대받은 참된 교회의 역사의 편에 놓음으로써 영국 국민이야말로 세상을 천주교라는 미신으로부터 구출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야 할 운명을 타고 태어난 "선택받은 국민"(the Elect Nation)이라는 신화가 탄생된 것이다.[10] 신과 영국의 관계는 신과 이스라엘(Israel)의 관계가 되고, Henry 8세는 다윗(David) 혹은 솔로몬(Solomon)이 되며, London은 예루살렘이 된다. 다시 말해, 영국 종교 개혁의 이론가들은 계시록적 인류 역사와 영국의 운명을 한데 묶음으로써 종교 개혁의 혁명적 에너지가 국가 권력과의 투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그것을 국가 권력의 옹호, 국가주의, 외국 혐오로 바꿔 놓을 수 있었다. 종교 개혁은 이제 교황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종교 개혁의 이념이 보여 주는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경사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주로 격렬한 반스페인 정서라는 통로를 통해 분출되도록 만들었다. 영국의 국가주의는 유럽 최대의 제국이자 천주 교회의 맹주로서 중세적 세계 제국의 이념을 표방하고 세계의 주인(*dominus mundi*)

---

9) 이 점에 대해서는 Andrew Hadfield, *Literature, Politics and National I Reformation to Renaissa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4], p. 78참조 : "Bal conflated the whole of national history into the idealised self of the mona implication is that just as the devil's history can be written as a series o popes or English votaries, so can God's history be written as a series o Protestant saints and good rulers"

10) William Haller, *Foxe's Book of Martyrs and the Elect Nation* (London: Jonatha 1963), pp. 224-50 참조.

임을 자처하는 스페인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반스페인주의는 특히 Mary 여왕 시대에 스페인 종교재판(Inquisition) 방식의 탄압을 거치는 동안 굳어졌고, 그후 Elizabeth 여왕 재위 동안 상존했던 개신교 분쇄 위협이 스페인이라는 실체를 통하여 현상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588년의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과 그 격퇴는 영국의 반스페인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정당화해 주는 사건이었다. 요컨대 스페인이라는 존재는 천주 교회가 종교뿐 아니라 국가도 위협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구체적인 적이었던 것이다.

## 3. 종교 개혁과 국가주의 :

### Geneva 성경, Foxe의 *Book of Martyrs*, 그리고 반스페인주의의 전개

Bale과 John Foxe를 비롯해서 Richard Cox, Edmund Sandys, John Ponet, Edmund Grindal 등 Mary 여왕의 탄압을 피해 Strasbourg, Zurich, Frankfurt- am-Main, Basel, 또는 Geneva에 집결한 망명객들은 주로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 생계를 유지하며 성경의 영어 번역과 교회사 집필에 열중하였다.[11] 이 때 대륙에서는 마침 Matthias Flacius Illyricus가 Magdeburg에서 새로운 Luther교 역사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었다. 역사 다시 쓰기가 유럽 대륙에서도 한창이었던 것이다. 영국 망명객들이 쓴 역사는 Henry 8세 말기의 망명객들 (Tyndale, Frith, Barnes, Bale)이 세운 전범을 따랐다. 그러나 Henry 시대의 망명객들과는 달리 이들이 염두에 둔 독자는 영국의 국왕이 아니라 영국의 대중이었다. Mary가 갑작스레 회개하여 개신교로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희망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영국 대중의 마음 속에 Edward 시대의 모습이 살아 남아 있도록 그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정력을 기울였다.

---

11) Strasbourg는 Sleidan, Peter Martyr의 친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Zur Bullinger의 근거지였으며, Frankfurt-am-Main에는 Melanchton이 있었고, Basel Oporinus의 출판사가 있었다.

영국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개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국에 개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신들도 그곳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쓴 역사는 영국의 국왕을 향한 훈계나 간언이라기 보다는 영국의 대중에게 개신 교회를 선전하는 책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역사서 집필과 성경의 영어 번역 작업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다. 성경 영역이 영국 대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서 집필은 영국 대중에게 개신 교회의 정당성과 궁극적 승리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들이 대면해야 했던 문제는 종교개혁 초창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뿌리 깊이 박힌 전통의 권위를 뒤엎고 새로운 권위를 심어야 하는 작업, 대중의 신앙 체계를 갈아치우는 작업, 대중의 귀를 선점하는 작업, 즉 선전전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이 그 문제를 성경의 대중화, 성경 독점 반대 투쟁, 대중 문화에 개신교 정착시키기의 투쟁으로 이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Mary 시대에 탄생한 순교자들은 그런 선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종교의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종교의 새로운 순교자 열전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까지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다. Elizabeth가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 해인 1559년에 Foxe가 Grindal이 보내 준 자료를 정리하여 Basel에서 라틴어판 *Actes and Monuments*를 서둘러 내고 1563년에는 다시 London에서 영어판을 출판한 것은 모두 그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12]

Mary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Elizabeth 여왕이 즉위하자, 이들 모두 망

12) John Day에 의해 출판된 *Actes and Monuments of these latter and perilous d touching matters of the Church* (1563) 참조. 그러나 인용문은 S. R. Cattley가 1 에 출판하고 나중에 Rev. Josiah Pratt이 편집한 8권 짜리 현대 판본을 따랐다 (R Josiah Pratt, ed., *The Actes and Monuments of John Foxe* [London, 1877]).

명 생활을 끝나고 영국으로 되돌아 가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이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물론 the Great Bible, Matthew Bible, Geneva Bible 등 변모 과정을 거치지만)은 물론이고 이들이 쓴 역사서, 특히 Foxe의 *Actes and Monuments*가 이 시대의 실질적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된다. 1571년 대주교구 회의(Convocation)가 "모든 대주교와 주교는 자기 집에 최근 London에서 출판된 바 있는 제일 큰 『성경책(the holy Bible)』과 『순교자 열전』이라는 제목의 자세하고 완벽한 역사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또한 모든 교회의 주임 사제도 같은 책들을 구입하여 대성당의 편리한 곳에 비치해서 교구 목사나 국교회의 다른 목사 또는 손님이나 이방인도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Foxe의 책은 영어 성경과 함께 명실공히 영국 국교회의 새로운 경전으로 편입된 것이다.[13]

영어 성경과 Foxe의 책은 Bale의 역사 해석이 종교와 국가/정치를 얼마나 밀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사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애초부터 국왕 지상권의 주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고 Tudor 시대에 이루어진 선전전의 성공 여부는 '왕권'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나 '국가'라는 말로 근접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왕권의 보호가 그대로 국가의 보호로 '번역'될 수 있는지 여부에 선전전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Tudor 선전전은 대외적일 뿐 아니라 대내적인 것이었다. 이 대내적 선전전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책이 바로 영어 성경과 Foxe의 책이었다. 영어 성경과 John Foxe의 *Actes and Monument*는 Bale의 계시록적 역사 해석을 르네상스 영국의 의식 세계에 깊이 각인하

13) "Euery Archbishop and bishop shall haue in hys house *The holy Bible* in the volume, as it was lately printed at London, and also that full and perfe which is intituled *Monumentes of Martyres*. . . . [the same bookes be purch euery Deane and] bestowed in his Cathedrall Church, in such conuenient plce, vicares . . . and other ministers of the Church, as also straungers and fo easilie come vnto them, and read theron" (*A Booke of certaine Canons, con some parte of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1571], A3v).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yclif는 인간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Tyndale 역시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그들 앞에 놓이지 않으면, 평신도들에게 어떤 진실도 가르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14] 이들에게 종교 개혁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거니와, 영어 성경의 광범위한 배포는 로마 교회의 성경 독점에 대한 항거일 뿐 아니라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성취하는 국가주의적 의의 또한 지니는 것이었다. 1560년대에서 164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성경은 Geneva 성경이었다. 이 성경은 William Whittingham, Miles Coverdale, John Knox 등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것으로, 1560년 영국에서 출판되어 1576년경에는 영국 전역에 널리 유포되었고, Elizabeth 시대에만 90번이나 인쇄되었으며, 1644년까지 계속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애초에 광범위한 배포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간편한 4절판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장치로서 지도와 용어 색인, 주석이 첨부됐고, 각 장은 내용 요약으로 시작되고 절로 나뉘어 있었다. 게다가 이 성경은 값이 싸서 1568년에 나온 주교 성경을 물리치고 영국의 "국민 성경" 또는 "영국의 거울(Englands Looking-Glasse)"이 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Geneva 성경은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문화 제도였다. 이 성경의 대중화는 곧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교리와 이념의 대중화를 의미했다. 예컨대 Geneva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붙여진 주석은 Calvin적일 뿐 아니라 Heinrich Bullinger와 John Bale의 책자로부터 따 온 것으로, 종교 개혁의 이념을 유

---

14) Tyndale의 말은 H. Wheeler Robinson, ed., *The Bible in Its Ancient and E Versions* (Oxford: Clarendon, 1940), p. 156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다: "I had perceived by experience, how that it was impossible to esta lay-people in any truth, except the scripture were plainly laid before their mother tongue, that they might see the process, order, and meaning of the te 번역과 배포의 역사와 그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과 Christopher Hill, *T English Bible and the 17th-Century Revolution* (London: Penguin, 1993)을 참조할

포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15] 계시록 13장의 주석은 첫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둘째 짐승이 첫째의 권위를 몽땅 삼켜 버렸는데, 그 둘째 짐승은 교황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Geneva 성경은 오직 사도 요한(John)의 서한에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과 데살로니가 후서 2:3-9에 언급된 "신의 성전에 신으로 앉아 있는" "죄악의 인간(the Man of Sin)", "멸망의 아들"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채택하고, 이 셋 모두 교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3-9에 붙여진 주석은 Geneva 성경의 반교황제 정서를 잘 대변해 준다: "All men know who he is that saith he can shut up heaven and open it at his pleasure, and took upon him to be Lord and Master above all kings and princes, before whom kings and princes fall down and worship, honouring that Antichrist as a God."[16] 위에 인용한 반교황제적 발언이 잘 보여 주듯, 이 성경이야말로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국왕의 지상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Christopher Hill이 영어 성경 일반에 대해 한 말은 Geneva 성경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vernacular Bible became an institution in Tudor England, the foundation of monarchical authority, of England's protestant independence, the text-book of morality and social subordination."[17]

그러나 영어 성경의 보급은 무엇보다 신이 영어로 말하고 영국 사람이라는

---

15) Paul Christianson, *Reformers and Babylon: English Apocalyptic Visions f Reformation to the Eve of the Civil War* (Toronto: U of Toronto P, 1978), p. 3 "The notes on the Revelation, then, fits squarely into the mainstream Englis interpretation of the reformation. The Reformation represented that spiritu the latter days prophesied by St. John. It opened the way for the imminent Christ and his final annihilation of popery—'The overthrow of the beas [supporters] which shall be accomplished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 20)."

16) Hill, *Antichrist*, p. 4에서 재인용.

17) *The English Bible*, p. 4.

생각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John Aylmer가 자신의 책자 *An Harborowe for faithfull and true subjects*의 여백에 써 넣은 유명한 말 "God is English. For you fight not only in the quarrel of your country but also chiefly in defence of His true religion and of His dear son Christ"는 그대로 Geneva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국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말이기도 하였다.[18] 실제로 신이 영국 사람이거나 영국이 신의 사랑과 보살핌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대 전체를 통해 수 없이 반복되었다. 제네바 성경은 번역자들의 의도대로 영국인들에게 자신은 "신이 선택한 인민(His people)"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19]

영어 성경이 만들어 낸 대중 문화와 언어—성경이 제공한 공통의 이미지와 언어—가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잘 보여 주는 것이 Foxe의 *Actes and Monuments*다. Mary 여왕 시대에 개신교를 고수하다 화형당한 개신교의 순교자들의 행적이 중심을 이루는 이 책은 반천주교주의의 교과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반천주교주의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적개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국 '국가주의'의 맹아를 보여 준다. 로마 교회의 악마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그대로 단일 군주제의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Foxe는 반천주교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황제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훌륭한 개신교 군주야말로 모든 구악을 뿌리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Foxe는 그런 군주의 전범을 Constantin 대제의 행적에서 발견했으며, Elizabeth 여왕이 제 2의 Constantine 대제가 기를 소망했다. Foxe에게는 강한 군주야말로 악의 화신인 용을 사슬에 감아

---

18) John Day에 의해 1559년 4월 26일 London에서 출판되었다.

19)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실제 영국의 의식에 끼친 영향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로는 특히 Patrick Collinson, "Biblical Rhetoric," in *Religion an in Renaissance England*, ed. Claire McEachern and Debora Shuger (Cambr Cambridge UP, 1997), p. 19 참조.

지하 세계에 가둘 수 있는 용 사냥꾼(dragon-slayer)이자 메시아였던 셈이 그래서 Foxe의 성자전은 로마 교회와 같은 국제적 조직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강조하는 한편, Constantine 대제 이래로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가 곧 참 교회의 역사였으며 신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참 교회로 규정하고 로마 교회는 이를 탄압하는 적 그리스도적 거짓 교회라고 파악하는 Foxe의 이 새로운 교회사는 Bale의 계시록적 구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영국 개신교도들의 순교의 고통이야말로 그들이 참되고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국가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로 '번역'하고 영국 개신교의 운명을 영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으로 파악할 때, 영국 역사의 정점은 스페인 함대의 격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급진적 개신교가 어떻게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외국 혐오증,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Foxe가 개신교의 순교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영어 번역과 성경의 만인 소유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가 수 세기 동안 누려 온 신의 말씀 독점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Foxe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 재판에 임하는 숱한 개신교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 누가 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영어 성경의 소유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영어로 번역된 신의 말씀이 곧 참된 교회의 증표라는 논리의 다음 단계는 물론 신은 영어로 말하는 영국 '사람'이라는 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영국 국민이 '영국 사람'인 신을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적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볼 때, Foxe 책의 중심을 이루는 Mary 여왕 시대의 탄압기가 또한 이 책 전체를 통해 로마 교회의 압제를 가장 직접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몸이 녹아 기름으로 변하고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하체는 타고 상체는 그을렸으나 그래도 생명이 남아 기도하

는 영국 개신교도들의 수난의 모습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고 길게 묘사하는 것은 요컨대 교황이 인간을 번제의 희생양으로 바치는 잔인 무도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이고, 적그리스도이며, 영국민을 탄압하는 폭군임을 증언하고자 함인 것이다.

그러나 Foxe의 이야기가 보여 주는 또 다른 그림—그렇지만 국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열심히 가리고 있는 그림—은 개신교의 근원적 개혁 정신 또는 혁명 정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대의 대중 전체가 아니라 엘리트층이 주로 혁명적이었고 이들 엘리트가 대중에게 혁명 정신을 불어 넣으려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Foxe의 이야기는 엘리트들의 저항뿐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대중이 그들과 함께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기존 권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이들 대중 순교자가 어김 없이 보여 주는 특징적 태도이기도 하다. 사실 당대 영국처럼 교회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개혁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사회의 구조에 대한 개혁 노력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복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런 사회에서의 종교 투쟁은 기존 구조의 억압에 대한 개혁 투쟁으로 변할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는 말이다. Foxe의 교회사는 참된 교회의 억압사지만, 동시에 참된 교회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사회 혁명 노력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Foxe의 책은 군주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책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었다. 종교와 정치가 동일시될 때, 종교는 정치를 바라 보는 눈이고, 정치에 대해 발언하는 통로이며, 현실 군주의 권위는 신의 길을 따르는 한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사회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청교도 혁명(the English Civil War)이 일어난 1641년이라든가 계승 배제안 위기(the Exclusion Crisis) 직후인 1684년에—재발행되어 왕(또는 더 흔하게는 왕을 둘러싼 신하들)이 신의 정도를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꾸짖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 또한 그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바이다. Mark Goldie의 말대로 "usurping clergy"가 "usurping crown"이 되고 "godly king"이 "royal Antichrist"가 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던 셈이다.[20] Foxe의 책이 개혁을 주장하고 중세